

지 상 범 석

★ “당신이 누구냐” 물으면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尚의 참선요지 26

要與妄想決一死戰 那知妄想豈拼不了
요어망상결일사전 나지망상극반불료
倒弄淨土血癡狂
도롱독토혈발광
或有怕落空 那知早已生出鬼
혹유과나공 나지조이생출귀
空也空不掉 悟又悟不來
공야공불도 오우오불래

피하고 고요함을 따르려 한다.
이미 동정의 두 마왕의 권속이 되어
버린 것이다.

諸如此類很多很多
제여차류한다한다
初用功不到底頭實在難
초용공모부도로두실재난
有覺無照 則散亂不能安坐
유각무조 칙산란불능락당
유각무조 칙산란불능락당
有照無覺 又坐在死水裏受校
유조무각 우좌제사수리침살

이러한 부류들은 많고도 많다.
처음 공부할 때 제 길로 들어서지 못
하면 참으로 어려움이 많다.
깨달은 비는 있으나 비침이 없으면
곧 산란하여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비침은 있으나 깨우침이 없으면 또한
사수에 들어 앉은 것이라 빠져 죽게 된
다.

用功難說 但提到頭又復易
용공수설난 단모도로두우한이
提覺是初用心的初呢
심마시초용심적이니

요컨대 망상과 더불어 한판 죽기로
싸움을 하는 것이니 어찌 망상이 멀어
져 나가는 커녕 토혈 방광에 이를 줄
이나 알리오.

어떤 이들은 무기공에 떨어질까 두려
워하나 어찌 이미 (망상의) 귀굴에 태
어났음을 알겠는가.

공이 공이 아니요 깨달음이 깨달음이
아니라.

或有將心求悟 那知求悟道想成佛 都是
혹유장심구오 나지구오도상성불 도지
箇大妄想
개대망상
研辨版本 求至真年也 決定不取悟
사비판본 구도려년야 결정부득오
或有加到一兩枝靜香的 便生歡喜

“죽은 사람 매맞아도 꿈쩍하지 않듯
공부 어려우나 번뇌 놓아버리면 쉽다”

혹유평도일양지정항적 번생환희
那能是眼眼鳥龜木孔 偶然瞥着
나근시평안오구한목공 우연광착
不是實在功夫 歡喜早已 增心了
부시실재공부 환희마조이 부심료
或有靜中覺得清淨爭淨很好過
혹유정중각득청정정정한호과
動中又不行 因此難向寂
동중우불행 인차괴환항적
早作了動靜兩魔王的眷屬
조작료동정양마왕적권속

沒有甚麼巧 放下來便易
放下箇甚麼 便是放下一切無明煩惱
방하개심마 번사방하일체무명번뇌
怎樣才可放下呢
중양재가방하니

공부하기가 비록 어렵다하나 일단 길
을 바로 들어서면 또한 아주 쉽다.
어떤 것이 초심자의 쉬운인가.
무슨 교묘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
다. 놓아버리면 쉽다.
어떤 것을 놓는가. 문득 일체의 무명
번뇌를 놓는 것이다.
어찌해야 놓아 버릴 수 있는가.

我們也透過往生的
아문야승과왕생적
礙試那死屍幾句 他也不動氣
이시독나사시기구 타이부동기
打他幾棒 他也不還手
타타기봉 타이불환수

우리들이 누구를 저 세상으로 보낸다
고 하자. 그대가 시형삼아 시신에다 몇
마디 욕을 퍼부어도 그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몇 방망이 때려보라. 그래도 대항치
않을 것이다.

龍眼

사람들은 흔히 불교는 어렵다고 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왜하면 우리가 알고 있
는 세상은 우주의 참모습을 깨달은 부처님
께서 아시는 세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아시는 세계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잘못으로 말미암아 어
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것은 이러한 잘못
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니 이것을 이해하려
는 것보다는 무조건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 신도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무
리라는 뜻이니 그 말이 가리키는 바와 같
이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
리들의 본분입니다.

물론 말씀을 믿는다고 하여 글자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 뜻을 새겨서 믿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
습니다. 그러기 위해 배운다는 말이 있는
것이요, “달을 보라고 손으로 달을 가리
켰더니 보라는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는 말은 바르 이러한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불교 신도의 대부분은 <반야심
경>을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해
하는 사람은 더러 있지만 이를 믿는 사람
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엄격히

“불교는 어렵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아시는
세계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어렵게 느껴져요
무조건 믿고 실천하면
불교는 쉽습니다”

따져서 불교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말이 되고 ‘절에
는 다쳐도 신도가 아니다’라고 해도 지나
친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불교 신도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는지요.

믿는다는 것은 받아 들인다는 뜻이요 받
아 들었으면 오래도록 잊지 않도록 가슴에
새겨 두고 이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며 이
로써 부처가 되는 길에 한 발자국 다가가
는 것이 됩니다.

길에서 사람을 만나 “당신은 사람입니
까”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이
빨개지며 묻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 아닌가
하고 멍하니 바라다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사람이 무엇인가”고 묻는다면
과연 이에 대답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까요. 불교란 자기를 찾는 가르침입니다.
‘이 무엇?’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
람들은 선어(禪語)를 이해하려는 데에 몰

혜경스님
후설정사주진

- 약 력
· 1933년 전남 여
수 생
· 서울 보성고, 서
울대 사학과 졸
업
· 한국불교 법화
종 유지재단 상
임이사
· 무형사 조실
· 동산불교대 경
전연구원교수
법학연수원 원장
· 저서 <법화경 입
문> <법화심부
경> <법화경 총
설> 등 다수



두하면서 자기는 저쪽으로 밀어 놓고 다
른 대상에서 선어를 이해하려는 모순을 범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과는 영영 멀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공자님께서 천하를 주유하다가 노
(魯)나라에 들어 왔습니다. 선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한 장공(莊公)이 공자를 기쁘게
할 생각으로 “저의 가신(家臣) 중의 한 사
람이 버숨을 그만 두고 낙향(落鄉)을 하게
되었는데 수레에다 짐을 싣고 사를 동인이
나 가다 보니까 자기 마누라를 두고 왔으
므로 깜짝 놀라 다시 되돌아 와서 부인을
찾아 돌아갔다고 합니다”고 말하자 보통
사람이면 하하 하고 웃어야 할 터인데도
공자는 웃기는커녕 “그 사람은 사를 뒤에

부인을 찾았지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를 잊어버리고 찾은 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한심스러운 일입니다”고 대답했다
합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
고 있는 사람이 많고도 많습니다. 아마도
고작 안다는 것이 자기 이름 석자 정도지
요. 그러나 그 이름은 오직 일시적인 이름
즉 가명(假名)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름이
일시적인 줄 모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름으로 착각하고 비속에 새겨질 것만 생각
하고 살고 있으니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하
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내가 누군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개나 소는

자기가 개인 줄도 모르고 소인 줄도 모릅
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
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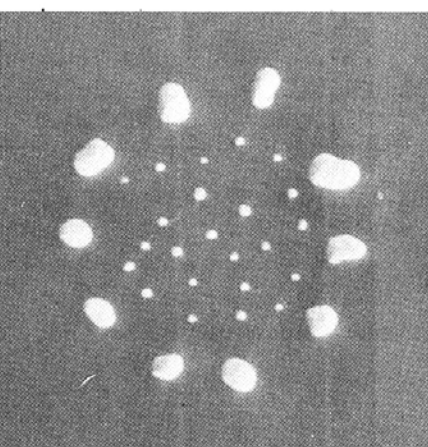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는 것이
사람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르는 것이 짐승 즉 축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디로 가는가 하고 물었을때 선
뜻 그 대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자기는 좀 지나친 말일는지 모르지만 사람
의 형상은 하고 있으면서도 사람이 아닌
짐승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
니까.
서양의 뉴턴이라는 철학자가 말하기를

2500년만에 출현한

부처님 진신 사리 친견 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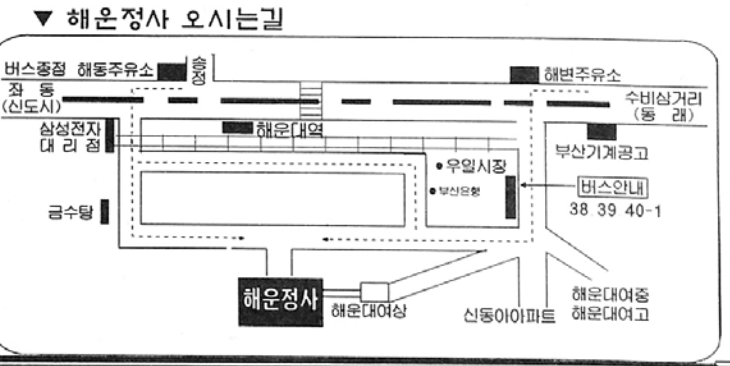
진제대선사께서 이곳에 절터를 잡아 대가람을 이루다 이 대사원
을 장건함은 부처님의 심인법이 면면히 이어와 임제정맥을 바로
이은 항곡 선사의 선가풍을 널리 퍼기 위함이라 일용에 무상심인
법을 선양하니 제방에 운수남자와 단원들이 운집하여 대회상을
이루니 영산회상의 재현이요 불일이 더욱 빛남이라. 부처님 진신
사리 33과를 2500년만에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해운정사에서
모시어 친견하게 된 사리는 미얀마(버마) 페야지방 슈지곤 대
답이 1974년 대지진때 무너져 그 탑 속에서 출현하시게 되었습니다.



▲ 미얀마 슈지곤 대탑에서 2500년만
에 나타신 부처님 진신사리

그후 미얀마 판티나 주지스님께서 20여년간 소장하시던 것을
미얀마 위자나다스님께서 일본을 거쳐 해운정사로 모시고 오셔서
진제대선사께 봉헌 하시어 친견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선
남선녀께서는 이 거룩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시는 공덕으
로 다생(多生)의 업장이 소멸되고 각자의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바
랍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법회가 끝나면 33척 11층의 진신사리탑을 조
성하여 해운정사 도량에 모시게 됩니다.

- 법 요 식 :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양력 1월 7일 오전 11시
■ 친견기간 :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양력 1월 7일부터 5월14일 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친견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415번지
해운정사 대불전
■ 위 치 : 해운대역 뒷편 해운대역상 옆
■ 문의전화 : (051)746-2256/4812
■ 후 원 : BBS 부산불교방송,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교계언론사



대한불교 조계종 선학원 해운정사 조실 진제 합장
분원장 명언